

미래디자인 가치예측 구조 연구¹⁾

이순종
디자인학부 부교수

I. 연구의 목적

디자인의 성패는 정확한 미래예측과 관계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디자인예측의 방법은 디자이너의 주관, 경쟁제품이미지분석, 사용자행동분석 등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표피적인 데이터에 의존하여,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미래디자인 가치모색과 예측의 방법으로는 적절치 못하였다. 디자인의 변화는 사회문화의 변화와 상호의존적이다. 또한 디자인은 사회적 관념, 규범, 기술은 물론 사물의 개념, 기능,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디자인의 가치는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이제 21 세기를 앞두고 사회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드높아지고 있다. 이에 디자인 본연의 임무—미래의 인간 삶을 계획하고 제가치를 종합화시키는—to 디자이너가 이 시대에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보다 종체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의 디자인가치 예측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주관이나 현상적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단편적, 표피적인 디자인예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반 디자인영역의 변화가치를 종합적인 안목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 디자인가치예측의 구조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디자인가치 예측모델은 디자인의 가치가 사회문화 가치의 반영이라는 시각에서 사회문화의 가치변화와 미래예측이론을 재해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1)가치변화 일반이론, 2)디자인가치의 변화구조, 3)디자인가치 예측모델 구조로 구분하였다.

II. 가치변화의 기본성격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디자인은 사회문화의 반영 및 창출의 도구로서 그 시대의 사회 및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디자인가치변화는 사회문화 변화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변화이론의 공통된 견해는 무엇보다도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우주는 끊임없는 생성이며 변동이다”라고 Humphreys가 말했듯이, 변화란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삶의 본성이며, 사물의 본성 그 자체 속에 내재되어 있어, 현실세계나, 인간역사, 인간성 그 무엇이든 본래 상태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운동하고 변화하며,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다.²⁾

또한 사회변화이론에서는 ‘변화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는 불변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이 함께 존재’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Whitehead가 “보존이 없는 단순한 변화는 무로부터 무로의 이행이다”³⁾

1) 본 논문은 국민대학교 조형논총(‘99)에 실린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2) Christmas Humphreys, Buddhism, Penguin Books, Middlesex, 1951, pp.80-81

3)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Free Press, New York, p.28

라고 하였듯이 변화의 전제는 보존을 필요로 하며, 한편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존재는 새로운 생성, 즉 변화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다. 이와 같이 존재하는 사물에는 보존(불변)과 변화(생성)의 원칙들이 함께 내재한다.

'새로운 것의 지속적인 출현, 즉 새로움의 창조는 존재의 본질'로 변화이론은 정리하고 있다. 또한 창조는 분리되어있는 다수가 복합적인 하나의 통일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궁극적인 원리로서, 분리로부터 결합으로의 진전은 분리되어있는 실체와는 다른 새로운 실체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창조된 자연과 사물의 존재 그 자체는 상호의존적인 부분 등의 체계로서, 창조성의 개념은 상호의존을 선제로 한다'라는 것이다. 한편, 존재의 가치체계는 그 사물의 속성에서 뿐만 아니라, 외적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식물을 그것의 속성들—크기, 색깔, 잎의 모양 등—을 기술한다고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식물은 그것이 그 환경과 갖는 관계들에 의해서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그것의 발전에 의하여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변화이론은 '변화는 모순을 포함하며, 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운동하며 발전한다'고 말한다. 흔히 모순들은 집단들의 갈등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기 쉬우며, 모순의 원인들은 물질, 관념적 가치의 차이 등 다양할 수 있다.

III. 가치변화의 구조와 변수들

상기 사회변화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존재의 가치변화는 정상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과정 속에서는 1)불변과 변화의 원칙이 내재하며, 2)그 변화는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창조되며, 3)새로움의 창조개념은 내외가치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4)변화는 변증법적 유형으로 진전' 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들 각 이론들은 사물의 가치변화의 구조적 틀을 이룬다. 즉 1)의 존재가치의 불변과 변화는 변화의 수준과 관계하며, 3)의 창조에 있어서 내외 가치의 상호관련성은 변화의 원인과 관계한다. 4)의 변화의 변증법적 발전은 변화의 유형이나 방향과 관계한다. 이를 정리하면 가치변화의 구조적 변수는 크게 '변화의 수준', '변화의 원인', '변화의 유형과 방향', 그리고 '변화의 속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치변화의 수준은 변화의 내용이나 깊이에 관한 것으로, 예로 사회가치의 변화는 그 수준에 따라 문명, 사회, 문화, 개인가치, 또는 전체에서 개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은 사회학에서는 기술, 경제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관념적 요인, 인성(창조성)적 요인을 변화의 주된 요인들로 지적한다. 즉, 사회문화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기술과 경제와 같은 물질적 요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나 흔히 사회문화가치의 변화는 물질이외에 사회구조나, 관념 등 여러 요인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가치변화의 유형과 방향은 변화의 패턴과 그 안에서의 변화의 세부적 특성의 흐름들을 의미한다. 기술문명의 축면에서 가치는 탄생, 성장, 정체, 해체의 순환의 유형으로 진행되고, 위니의 발전은 유물 대 정신, 절대 대 개인, 감각 대 상징 등의 가치가 순환적으로 지속된다고 본다. 종합하여 사회 문화적 수준의 가치변화는 순환적 진보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확산적 개념을 가정한다.

표-1 가치 변화의 분석 수준 4)

분석수준	대표적인 연구영역들	대표적인 연구단위들
전세계적 수준	국제조직, 불평등	GNP, 무역에 관한 자료들, 정치적 동맹
문명	문명들의 순환적 생존과정, 혹은 다른 유형의 변화들 (예를 들면, 진화적 혹은 변증법적)	예술적, 과학적 혁신들과 그 외 혁신들, 사회제도
문화	물질문화, 비물질 문화	기술, 관념, 가치
사회	계층체계, 구조, 인구, 범죄	소득, 권력, 위광, 역할, 이주율, 살인율
공동체	계층체계, 구조, 인구학, 범죄	소득, 권력, 위광, 역할, 인구성장, 살인율
제도	경제, 정치, 종교, 결혼과 가족, 교육	가족소득, 투표유형, 교회참석, 이혼율,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조직	구조, 상호작용의 유형들, 권위구조, 생산성	역할, 각종 친목단체들, 관리/생산비율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형태들, 커뮤니케이션	갈등이나 경쟁 또는 인접의 양, 상호작용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사람들과 듬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개인	태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신념

또한 유사한 사회적 구조에서는 유사한 사회적 가치의 특성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가치변화는 변화의 빠르기 즉 속도를 갖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는 다양하다.⁵⁾ 보존적 가치는 느린 속도를, 급격한 변화적 가치는 빠른 속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치변화는 변화의 존재여부보다는 변화의 속도라는 문제이다. 변화의 속도와 관련하여 한 수준에서의 변화는 다른 수준에서의 변화보다 더 완만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V. 미래예측의 기본원리⁶⁾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떠나 독립하여 생각할 수 없고, 또한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역할을 한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 미래는 완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미래예측을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왕래하여야 한다.⁷⁾ 한편 미래의 유형은 장기적 추세에서처럼 실재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개연성이 높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현재적(plausible)–결정론적인 영역, 분명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전개에 대한 확률분포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예측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잠재적(potential)–확률론적인 영역, 그리고 불확정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⁸⁾

4) R.H.라우어 지음/정근식,김해식 옮김, p.22

5) R.H.라우어 지음/정근식,김해식 옮김,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변동의 유형, 메카니즘, 전략), 한울 아카데미, 1985, p.28

6) 미래예측의 기본원리 및 관련 방법들에 대한 내용은 '미래학입문' (전득주외, 평민사, 1992),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하인호, 고도, 1995), '미래사회학' (배규한, 사회비평사, 1995) 등을 참고하였다.

7) 전득주외, 미래학 입문, 평민사, 1992, pp.70–71

8) 전득주외, p.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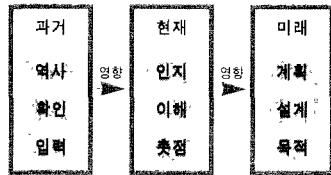


그림-1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체



그림-2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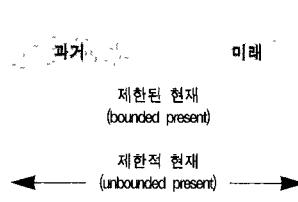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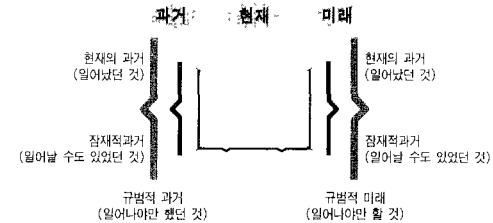
그림-3 과거와 미래로부터
현재의연계

그림-4 과거, 현재, 미래의 유형

따라서 미래예측의 첫번째 기본원리는 현재직-결정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시간축 위에 연속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연속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Continuity)이다. 이 원리에 입각한 외삽적 예측(extrapolative forecasting)방법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계일분식 자료에 입각하여 미래의 변화를 투사하는 것으로서 이는 미래예측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과거에 관찰된 유형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지속성, 규칙성,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을 가정한다.

미래의 예측에서 두 번째는 유추의 원리(The Principle of Analogy)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모든 현상에는 발생의 인과적 연관성과 순서가 있으며, 세번 현상간의 인과관계 및 발생순서를 관찰하면 미래에 일어날 사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어서 “을”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현상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미래에도 “갑”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곧 “을”이라는 현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주의 원리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이론적 예측(theoretical forecasting)이다. 외삽적 예측이 귀납적 추론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면, 이론적 예측은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 의하여 미래를 추론하는 연역적 질차를 취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세번째 방법은 직관적 예측(intuitive forecasting)이다. 외삽적, 이론적 예측 방법이 경험적 자료나 이론에 의존하는 추론이라면, 자관적 예측은 연구자의 통찰력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어떤 본능적 지각 능력과 창조적 분석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V. 디자인가치변화의 구조

디자인가치는 자연이나 인간의 삶에서와 같이 항상 변화하게 마련이다. 즉 디자인의 가치는 영속성보다는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실체로서, 그 변화는 내외부에 존재하는 디자인 가치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호유기성을 가지며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이 사회문화의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앞장에서 논의된 사회문화변화 이론의 가치변화의 구조는 디자인가치변화의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즉 디자인가치변화의 구조는 변화하는 디자인의 내적 가치 즉 내용-수준들과 함께, 변화의 유형과 방향성, 속도, 그리고 이를 변화를 유발시키는 사회 문화적 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디자인가치변화의 요소들, 디자인의 내용, 방향, 속도 등은 외적 환경과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며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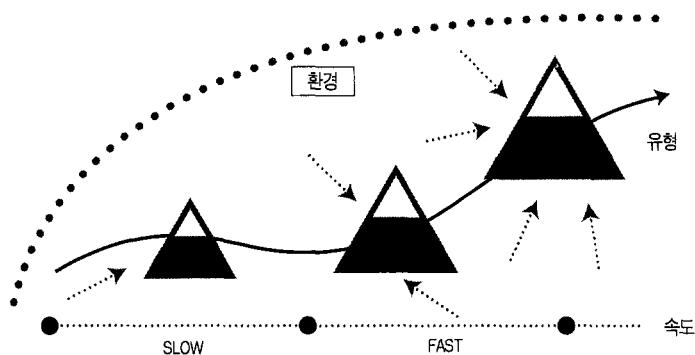


그림-5 디자인 가치변화의 구조

변화수준-내용: 디자인가치의 내용은 외형에서 내재된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을 이루고 있고, 그 내용적 변화는 디자인의 깊고 낮은 수준에서 발생한다. 이를 세분하면 가치의 근원과 관련된 ‘개념적 차원’, 이를 시각과 현상적으로 표출하는 ‘조형 이미지적 차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기술 기능적 차원’ 등으로 정리된다. 흔히 가치변화의 단계는 상부구조(조형이미지)에서 중간구조(기술, 기능), 그리고 하부구조(개념적 차원)의 순으로 가치들이 바뀐다. 디자인의 한 수준의 변화들은 다른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로 디자인의 외형적 가치는 변화하나 기술과 기능은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디자인내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수준과 영역을 하나 이상 연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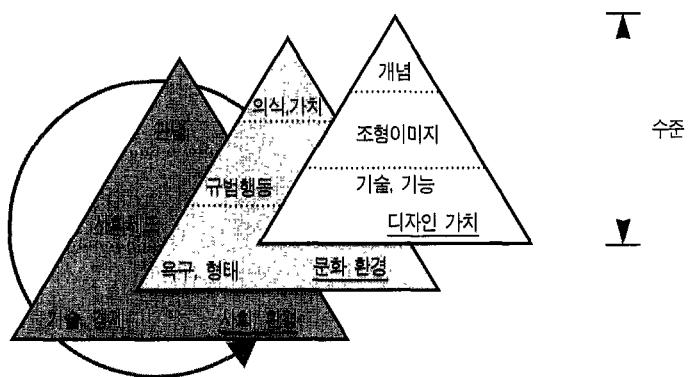


그림-6 디자인 변화의 수준

변화원인: 기술, 사회제도, 관념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나 ‘가치’, ‘생활과 행동을 포함하는 규

범', '도구와 용구' 등의 문화적 요인들은 각각 디자인가치변화의 광의와 협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디자인가치의 변화는 기술과 경제의 원인에 커다란 영향을 받으나, 새로운 양식의 어린이 장난감이나 자동차스타일에서 볼 수 있듯이—디자인변화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필연적으로 혁신적 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디자인의 가치는 사회, 문화, 인간요인 등의 상호의존적 체계로서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한다. 최근 들어 인간의 창조에의 의지 등은 혁신은 물론 디자인의 변화에도 중추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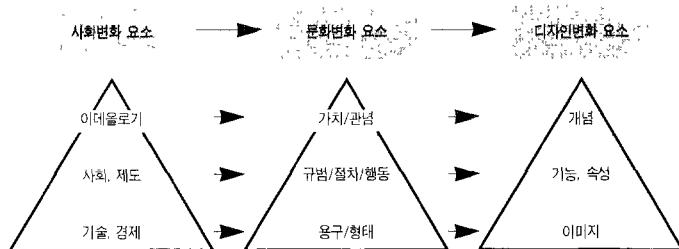


그림-7 각 영역별 가치변화 내용과 연계성

변화유형과 방향: 디자인의 변화과정은 넓은 의미에서 일정한 변화유형을 갖는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디자인의 가치변화는 균형과 갈등, 그리고 발전의 단계를 거치며 상승적으로 진화한다. 예로 동력, 속도 등의 발전에 바탕한 기술, 기능적 차원에서 디자인가치는 상승적 곡선의 진화유형을 보인다. 한편, 특정 제품이나 한 디자인의 변화유형은 대체로 제품주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생성-성장-성숙-쇠퇴의 과정, 즉 대수학적인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색, 형, 질감 등과 같은 조형이미지관련 변화는 관념과 감각, 정신과 물질적 가치의 반복에서 오는 진보도 되보도 없는 수평적 순환의 유형을 취한다. 한편 인류 문화적 차원에서 디자인의 변화유형은 혁신-전파(누적, 통합)-변용(적응)의 단계로 전개된다. 흔히 이 유형은 개인이나 조직의 힘으로부터 시작된 디자인의 혁신은 전파와 변용을 거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되면서 보편적인 질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적인 진화를, 그리고 지역과 개인의 측면에서는 차별적인 가치로 전개된다.

종합하면, 디자인가치변화의 유형은 사회문화라는 광의의 개념에서 볼 때 갈등과 혁신(사회적 관점), 전파와 변용(문화적 관점)의 과정을 통하여 통합과 이질의 반복하며 발전하며, 개체적 디자인은 성장과 쇠퇴, 물질과 관념 등의 가치들로 순환되는 유형을 보여, 결국 개념, 기능, 이미지를 포괄하는 디자인변화의 패턴은 상승순환적 진보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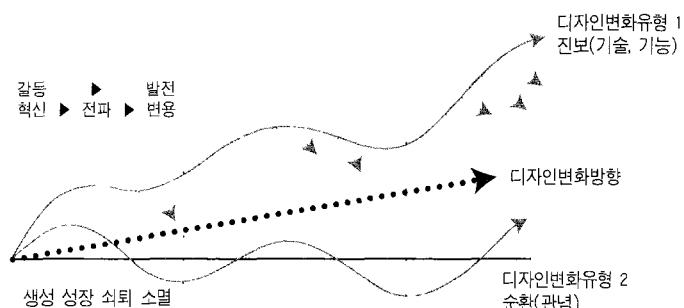


그림-8 디자인 변화의 유형과 방향

변화속도: 디자인의 변화는 변화의 속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어떤 사회나 문화에서는 디자인이 서서히 변화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한다. 흔히 디자인의 변화속도는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디자인변화의 속도를 중진시키는 요소들은 새로운 변화가치의 상대적 우월성, 적절한 기술적 해결, 유형모델의 존재, 이해하기 쉬운 적정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디자인변화를 억제하는 요인들로는 근본적 가치와 모순되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보다 높은 이전의 디자인가치에 저촉되거나, 급격한 변화, 전통적 태도 등 다양하다. 또한 너무 빠르거나 느린 변화의 속도는 인간에게 긴장을 발생시켜 디자인의 변화를 방해한다.

디자인의 미래가치는 어떤 미래의 순간에 도래할 상태에 대한 디자인내용의 변화를 예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디자인의 가치예측은 가능한 부분적 예측에 근거하여 전체를 전망하는 것이다. 사회이론에서 일컫는 변화예측의 기본원리인 연속성-지속성, 유사성-규칙성, 누적성-상이성 요인들은 디자인의 변화예측에서도 적용된다. ‘가치의 연속성(불별)-지속성’은 현재디자인의 가치징후가 미래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추세 외삽법이나 트렌드 분석법은 이와 같은 연속적 가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치의 유사성-반복성’은 같은 환경에서 유사한 디자인가치가 반복해서 출현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규칙성의 가치는 체크리스트나 인푸트(환경가치)-아웃트(디자인가치)기법, 상호 충격법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가치의 상이성-누적성’은 새로운 환경변화에서는 관련 가치가 부가 누적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이적 가치는 시스템동학이나, 로드맵에 의해 정리될 수 있다.

VI. 미래디자인가치 예측모델 및 적용단계

미래디자인가치 예측모델은 상기 디자인가치변화의 개념적 구조 및 특성을 토대로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예측모델은 1)디자인 예측대상의 내외가치구조의 파악, 2)대상과 관련된 과거, 현재 가치의 변화내용조사, 3)외삽과 유추적 분석, 4)가치의 연속성, 규칙성 및 상이성 파악, 5)그리고 대안제시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 1단계 문제의 정의 : 예측의 준비단계로서 예측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바탕으로 예측의 시기, 영역, 수준, 단계 등을 결정한다. 예측의 시기란 예측할 대상의 시간적 범주로 1~2년 후의 단기예측, 3~5년 후의 중기예측, 6~10년 후의 장기예측 등으로 나눈다. 예측의 영역은 제품대상의 존재이유, 목적, 용도 등에 의한 분류로 패션계 영역, 산업장비 및 내구제 영역, 그리고 중간적인 소비자제품계 영역 등으로 나눈다. 예측의 수준은 예측대상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외형적 이미지 수준, 기술과 기능적 수준,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 개념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활용의 단계는 예측방법이 활용되는 예측프로세스상의 단계로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조사 단계, 수집된 자료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분석단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디자인가치에 대한 예측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아이디어 도출단계, 도출된 아이디어를 종합하는 단계 등으로 구분된다.

제 2단계 예측의 방법 및 전략 : 이 단계는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적 접근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앞서 정의된 예측목표와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예측단계를 구성하고 시간적 인적 자원에 대한 할당,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설정되게 된다. 예측시기, 영역, 단계, 대상, 소요시간 등에 따른 예측방법 및 전략을 설정한다.

제 3단계 미래예측단계의 방법적용 :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예측방법을 적용하

여 실제로 예측을 진행해 나가는 활용단계이다. 이 활용 단계는 다시 수집 및 조사단계, 분석단계, 아이디어 노출 및 예측개발 단계 등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먼저 자료수집 및 조사 단계는 예측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앞서의 문제정의 단계, 예측방법 및 전략설정단계에서 확정된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조사하는 단계이다. 조사에서는 자료출처의 직접성여부에 따라 사용자관찰, 타운워칭, 심층면접 등의 방법과 같은 직접조사영역과 문헌연구로 대표되는 간접조사영역들로 대별된다. 미래예측과 관련하여 자료수집과 조사는 흔히 디자인대상과 환경가치의 변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여, 이를 조사를 통하여 대상 및 환경가치의 내용, 유형, 방향, 속도 관련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분석단계는 조사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예측을 위한 다양한 분석을 하는 단계로, 이 단계는 다시 자료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해내는 요약단계, 키워드간의 관계를 평가하여 키워드간의 상호구조를 파악하는 구조화 단계와, 시계열 편성 및 규칙성 파악단계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노출 및 예측개발 단계는 분석단계에서 발견되어진 키워드와 규칙성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어떤 가치가 형성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예측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가치수준, 방향, 속도의 규칙성의 흐름가운데 환경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지속될 연속적 가치-있을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과거와 미래환경의 유사성으로 나타날 반복가치-있음직한 미래, 그리고 과거나 현재환경과 다르게 전개될 미래환경의 차이로 누적되어 나타날 상이가치의 파악은 미래 아이디어 노출의 핵심적 방법이 된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규칙성 속에 미래가치의 예측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미래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 또한 더 해져야 한다.

제 4 단계 종합 및 검증 단계 : 마지막으로 종합 및 검증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예측시나리오를 그리고(Future Mapping) 그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게 된다. 다음으로 예측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 3자 집단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유효하다. 다시 이 방법은 환경과 대상가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가치에 대한 일련의 형용사 리스트를 통한 정량적 설문방법과 델파이법(Delphi)과 같은 관련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증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결과를 다음의 예측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 놓는 것이 좋다.

VII. 결론 및 추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디자인의 미래가치예측을 돋기 위한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래예측의 핵심인 변화와 관련된 이론을 발전시킨 사회변화이론과 미래학 이론을 바탕으로 가치의 의미와 변화, 가치변화 제 이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이론에서 검증된 다양한 가치변화의 구조, 변수와 특성들을 연구하고, 미래학연구를 통하여 미래예측의 개념과 원리의 기초를 연구하였다.

다음으로는 디자인과 가치예측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 디자인이 환경과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그 개념적 특성들과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환경의 이데올로기, 사회제도, 기술경제의 요인과, 문화의 가치, 행동규범, 용구의 요인은 각각 디자인가치의 개념, 조형, 기능의 특성과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디자인가치변화의 주된 요소들임이 규명되었다. 또한 사회가치변화와 같이 디자인가치변화의 구조로 다양한 내용과 수준, 유형, 속도가 존재하는 것임 이론적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문화 및 인류학예측 이론을 포함한 디자인의 예측기법을 예측의 다양한 환경적 조

건에 따라 분석 구분하였고, 해외 미래디자인 예측연구의 실제사례를 통해 미래디자인 예측연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래디자인예측모델의 구조연구에서는 디자인의 가치변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디자인예측의 전제조건을 규명하고 디자인예측의 모델구조가 정립되었다. 모델구조에서는 특히 디자인환경과 디자인대상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세외삽법과 인과 유추법에 의한 디자인 변화의 연속성, 규칙성, 상이성 파악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 Alfred North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Free Press, New York
Christmas Humphreys, Buddhism, Penguin Books, Middlesex, 1951
R.H.라우어 지음/정근식.김해식 옮김,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변동의 유형, 메카니즘, 전략),
한울 아카데미, 1985
배규한, 미래사회학, 사회비평사, 1995
전득주외, '미래학입문', 평민사, 1992
하인호,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고도, 1995